

1회 시상하고 막 내리는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광주정신과 맞지 않다” 반발에 재단·문화계 등 논의 폐지 가닥 후원금 연계·상 명칭 변경 할 듯

제14회 광주비엔날레에 사상 첫 도입된 ‘박서보 예술상’이 사실상 1회 시상을 끝으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4일 광주비엔날레 재단 관계자는 기자회견의 통화에서 “상은 유지하되 명칭 정도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현재는 논의 중이고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지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문화계에서는 박서보 예술상의 폐지를 가장 사활화하는 분위기다.

문화계와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최근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명칭 변경 여부를 두고 재단과 지역 미술계 등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했다.

재단 관계자는 “예술상 폐지는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후원금 100만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과 연계돼 있다”며 “미술계와 박서보 화가가 설립한 기지재단 측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재단 사정에 능통한 미술계 관계자는 “박서보 예술상은 박서보가 마치 비엔날레를 상징하는 것 같아서 너무 어색하고 광주의 정신과는 맞지 않는다”며 “물론 박서보가 현대미술을 상징하는 작가라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광주 비엔날레에 그의 이름을 딴 상을 제정하고 계속 시상하는 것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실 지난달 6일 열린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서 박서보 예술상 폐지를 주장하는 피켓 시위가 벌어지는 등 불협사운 모습에 연출된 바 있다. 또한 지



‘광주정신 모독하는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폐지를 위한 예술인과 시민모임’은 지난달 11일 광주비엔날레 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서보 예술상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금까지 미술계 인사나 화가들이 1인 시위를 전개하며 상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현실은 작가에게도 결코 명예롭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다.

재단 관계자는 또 “상의 명칭은 바꾸지만 기지재단 측의 후원 사실을 명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광주시와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모티브로 황금비둘기상을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박서보 예술상’은 1회 시상을 끝으로 간판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지역 미술계 인사는 “박서보 예술상에 대한 이름은 광주 비엔날레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다”며 “상은 존속하되 명칭 만큼은 이번 기회에 바꾸는 게 순리가 아닌가 싶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기지재단측은 “최근 비엔날레 관계자가 방문해 상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결

정이 되지 않았기에 뭐라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사장님 등과 논의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 아직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시상의 권위를 높이는 방안 등 이번 기회를 통해 비엔날레상 시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황금사자상 등의 이름으로 상을 주는 베니스비엔날레를 참고하자는 것이다.

미술평론가 J씨는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제는 상금이 없다. 그럼에도 이 상의 권위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다”며 “어떤 등위의 개념이 아닌 당대 비엔날레의 담론과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낸 작가에게 상을 주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리얼 군대 연극 ‘서부전선 이상없다’

6월 11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

제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말년병장과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어리바리한 이등병. 둘이 보초를 서고 있는 초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경계근무를 강화하라는 지령까지 나온다. 둘은 점차 공포감에 휩싸이는데, 이들을 위협하는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다. 바로 군대. 기억하기 싫지만 어느 때는 아름다운 청춘으로 기억된다.

군대 시절을 모티브로 한 연극이 무대에 오른다. 5월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펼쳐지는 유쾌한 상상의 ‘서부전선 이상없다’는 군대를 배경으로 한다. 뺨질이 대마왕 선임병과 관심사병인 어리바리 후임병이 초소 보초를 서면서 겪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렸다.

〈사진〉 밀리터리 샵집 코믹극인 이번 작품은 오는 6월 11일까지이며 월요일을 제외한 화

요일부터 일요일까지(평일 오후 7시 30분과 주말 오후 3시, 6시)이며 공연일(29일, 6월 6일)은 오후 4시에 진행된다.

평소 후임병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선임병은 후임병을 교육한다는 명분 아래 갈굼 교육을 시작한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고 어느 날은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상부에서는 경계 강화 지령이 내려오고 공포에 휩싸인 두 사람은 이상 상황을 풀어나갈까.

전석 3만5000원.중학생 이상 가, 0507-1397-3310.

제작사 관계자는 “이번 작품은 대학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맨스, 사랑과는 다른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과 특별한 소재를 모티브로 제작됐다”며 “군대를 다녀온 이들에게는 추억을, 경험하지 못했던 여성들에게는 공감의 시간이 되는 문화를 향유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흑백의 풍경...아련한 듯 쓸쓸한 분위기

‘모노크롬의 여백-정상섭’ 전, 30일까지 국운미술관

생략된 명암 사이로 들려오는 무수한 내면의 소리들.

정상섭 작가의 작품을 보노라면 작가의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는 어디쯤일까, 상상하게 된다. 무수히 많은 선이 펼쳐낸 아련한 풍경은 아련하면서도 쓸쓸한 분위기를 피워낸다. 내면 깊이 자리한 작가의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진다.

국운미술관이 기획한 ‘모노크롬의 여백-정상섭’ 전을 연다. 오는 30일까지 제2전시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흑백 영화의 단면과도 같은 모노크롬 작품들을 선보인다. 콩테를 사용한 흑백의 단색은 그러나 화려한 색채보다 더 많은 언어와 풍경을 담고 있다. 정적이면서도 서정적인 이미지는 보는 이에게 상상의 날개를 펴게 한다.

버드나무를 비롯해 마을의 풍경, 처음 선보이는 바다는 이전의 작품과는 다른 아우라를 발한다. 작가의 내면세계, 예술세계를 다채롭게 엿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 그 내면에 살포시 초대면 느낌을 받는다.

정상섭 작가는 “울동적인 선을 표현하면서도 많은 생략과 선들 사이의 작은 여백으로 무한한 상상을 펼칠 수 있게 구성했다”며 “이번 전시를 매개로 많은 관객이 모노크롬의 회화를 느껴오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작가는 조선대 미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한국미협 서양화 분과 이사, 광주시 조형물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제현대미술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무 동산’



원불교 대각개교절 ‘다 같이 다 함께’

설법, 개교 의의 새기는 나눔행사...이달 말까지

대각개교절은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가 큰 깨달음을 얻은 날(1916년 4월 28일)을 말한다. ‘대각’은 진리를 크게 깨닫는 것이며 ‘개교’는 종교의 문을 열었다는 뜻이다.

원불교는 모든 교도가 교법정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정신을 새기자는 뜻의 대각개교절을 가장 큰 경축일로 기념하고 있다.

원불교 광주전남대교구가 108주년 대각개교절 봉축기간(4월 1일부터 5월까지)을 맞아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번 대각개교절 행사 주제는 ‘다 같이 다 함께’.

먼저 지난달 28일 광주교당 대각전에서 이장훈 교구장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윤성욱 교회의회장, 정지광 교도회장, 김원명 광주원음방송본부장, 각기관 단체인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광주지구는 지역 종교단체들이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무등산 풍경소리(4월22일)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원불교 은빛어울총창단, 중심사 합창단, 천도교 타악 연주와 원불교 정세완 동부지구장, 조인서 서부지구장, 김성룡, 한상렬목사, 중현스님, 이우원 선도사가 원불교 대각개교절을 경축하며 대중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광주동부지구인 곡성권역, 광주서구권역에서도 설법과 아울러 개교의 의의를 새기는 행사를 가졌으며 교구공공회와 풍암교당은 저소득층들 대상으로 사랑의 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북광주교당은 어린이, 학생들이 교당 주변 쓰레기줍기 환경보호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은 금호상생마을 다같이·다함께 나눔잔치를 진행했다. 체험마당(지구살리기, 건강부스, 나눔활동, 상상활동, 생명나눔 등)을 비롯해 노래자랑, 난타공연,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무안교당과 장성교당, 광양교당은 교도들의 성금을 십여억 원에 달하는 교육시설에 전달했고 여수교당은 독거노인에게 누룽지 30박스를 회사했다. 목포지구인 완도지역에서는 완도 군민과 함께하는 켈터음악회(북목교당)가 지역 명창, 밴드, 난타 팀과 가수 박상철이 출연한 가운데 열렸으며 행사에 참여한 이들에게 지역특산품이 주어졌다.

한편 이장훈 교구장은 “대각개교절 봉축기간을 맞아 ‘다 같이 다 함께’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은혜 나눔의 시간은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깨닫고 일상에서 그 의미를 구현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의미를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자신만의 감성적 언어를 꽃 피우다

강진 출신 김윤아 시인 ‘지니아, 사랑도 네가 해줄래’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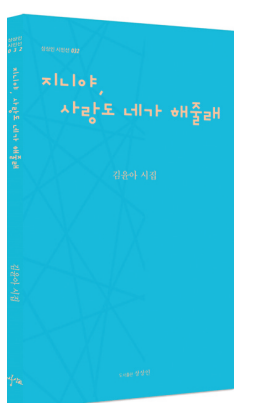
“벗어 놓은 그림자가 고이는 곳에서 가끔 힙우어 울었다. 흔들리는 달빛을 따라왔을 뿐인데 한편의 집 속이었다.”

‘시인의 말’을 읽고 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어리고 예민한 존재는 비단 특정한 시인마를 가리키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의 시대 시를 쓰고 산다는 것은 수다한 상처를 묵묵히 감내하며 자신만의 언어를 꽃 피우는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강진 출신 김윤아 시인이 첫 시집 ‘지니아, 사랑도 네가 해줄래’ (상상인·사진)를 펴냈다.

모두 50여 편의 시들은 감성적 언어들로 자신만의 세계를 형성화한 작품이다.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이성적 시인이 평한대로 ‘외출타기’가 아닐까. ‘시인’이란 저 외출 타는 사람과 같은 이 아닐까? 라는 표현은 결코 세상과 한 무리로 동일화될 수 없는, 자신의 견고한 세계를 지향하는 존재들을 규정하는 말일 것이다.

“가끔은 감정을 따로 보관할 서랍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 사랑이란 꽃말을 가진 노란 수선화가 양중맞도둑/ 예쁘지만 사람이 자기만의 사랑이 되면// 그건 누군가에게 불행//(중략)//바라봄이 지나치지 않게/ 내 안에서 서성거리는 감정을 서랍에 넣고 싶다”



위 시 ‘감정서랍’을 보면 감정을 대하는 화자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서성거리는 감정’을 서랍에 넣고 싶은 것은 흑어 듣지 않았으면 하는 내면의 그림자일 것이다. 들킬 수도 또는 듣지 않았으면 하는 어슬렁한 ‘외출타기’는 화자가 버티고 선 균형점일 수도 있다.

이성혁 문학평론가는 “‘시인’이란 저 외출 타는 사람과 같은 이 아닐까? 김윤아 시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테다”며 “언제나 날고 있어야 하는 운명을 살아야 하는 존재자가 시인이다”라고 평한다.

한편 순천대 책임취업지원관인 김윤아 시인은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위원, 순천여성문화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태일문학상’ 6월말까지 공모

죽형(竹兄) 조태일(1941-1999) 시인은 독재 정권에 맞선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다. 1969년 ‘시인’지를 창간해 김지하, 양성우, 김준태, 박남준 시인 등을 발굴했다.



조태일 시인

곡성 출신 조태일 시인을 기리는 문학상이 올해도 주인공을 찾는다.

(사)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이사장 박석무)와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제5회 조태일문학상’을 공모한다. 상금 2000만원.

접수는 5월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간이며 접수는 다음의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60 광주문화예술회관 별관 1층 광주전남작가회의 내 제5회 조태일문학상 담당자 앞)로 하면 된다.

최근 2년 이내(2021년 6월 1일 이후)에 발간한 시집을 응모하면 되며 수상시인에게는 상금과 아울러 조태일 시인의 대표시 ‘국토서시’가 새겨진 고압 정병례(1948-2022) 작가의 전작 작품을 부상으로 시상한다. 시상식은 오는 9월 곡성군에서 열리는 조태일 시인 24주기 문학 축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 홈페이지 참조.

이번 공모전은 한국작가회의, 광주전남작가회의, 장비, 문학들, 시인이 후원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